‘화끈한 몸싸움’ 허용… 농구 코트 달군다

19일 KBL 2024·2025시즌 개막

10개 구단 6개월 대장정 시작
부산 KCC·수원 kt 개막전
파울로 인한 경기중단 최소화

프로농구 2024·2025 시즌이 터프해진 모습으로 이번 주말부터 팬들을 찾아간다.

이번 시즌은 19일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었던 부산 KCC와 수원 kt 경기를 시작으로 2025년 4월8일까지 6개월여 간의 정규시즌에 들어간다.

프로농구 10개 구단은 정규시즌 동안 팀당 6라운드, 모두 54경기를 치러 플레이오프에 나갈 6개 팀을 가린다.

새 시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이 심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파울로 불려 경기 흐름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완화된 판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KBL은 지난 달 규정 설명회를 열고 정상적인 수비 위치에서 상대 팀 공격수를 따라 좌우 또는 뒤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파울을 불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울 기준이 완화하면서 선수들이 심판의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 가벼운 접촉에도 넘어지는 모습은 크게 줄어들고, 골밑 등 볼 소유권 다툼이 심한 지역에서 거친 몸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U파울(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속공 상황에서 수비수가 공격수를 마주 본 상태에서 팔만 뻗을 경우에도 U파울이 선언됐다. U파울이 선언되면 공격하는 팀은 자유투 2개와 공격권까지 얻는다.

하지만 새 시즌부터는 상대 선수가 가진 공을 향해 손을 뻗을 경우 일반 파울이 선언된다. 상대를 몸으로 덮치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은 여전히 U파울이 선언된다.

판정 기준 완화와 함께 ‘파울 챌린지’가 도입된다. 각 팀 감독은 4쿼터 또는 연장전에서 자기 팀에 선언된 개인 파울에 대해 한 번씩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독들이 승부처에서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는 거친 모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팀 간 우승 경쟁 면에서 보면 지난 시즌 우승팀 KCC의 아성에 원주 DB, kt, 창원 LG가 도전하는 판세가 될 전망이다.

지난 시즌 정규시즌을 5위로 끝낸 뒤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차지한 KCC는 허웅, 최준용, 이승현, 송교창 등 우승 멤버들이 건재하다.

골밑을 책임지던 귀화 선수 라건아가 팀을 떠난 뒤 2017·2018시즌 DB에서 뛰며 최우수 외국 선수로 뽑혔던 디온테 버튼을 영입해 전력 약화를 막았다.

지난 시즌 정규시즌 1위를 하고도 4강 플레이오프에서 KCC에 패했던 DB는 막강한 골밑 수비력을 자랑하는 치나누 오누아쿠를 영입했다.

기존 멤버 김종규, 강상재와 호흡을 잘 맞춘다면 높이에서는 최강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DB는 정규시즌 전초전으로 열린 KBL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예열을 마쳤다.

강상재가 허리 부상으로 KBL컵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시즌 개막에 맞춰 복귀할 전망이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KCC에 패해 아쉬움을 삼켰던 kt는 허훈과 문성곤, 하윤기 등 지난 시즌 멤버를 유지했고, 새 외국인 선수 레이션 해먼즈, 제레미아 틸먼이 합류했다.

KBL컵에서도 결승전에 올라 DB와 대결했던 kt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주축 선수 허훈이 손목을 다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걱정이다.

새 시즌에 팀 색깔을 가장 크게 바꾼 팀은 LG다. 탄탄한 수비가 강점이었던 LG는 슈터 두경민과 전성현을 영입해 '공격의 팀'으로 변모했다.

KBL컵에서는 두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아 조별리그에서 2패로 탈락했지만, 정규 시즌에는 어떠한 전력을 보여줄지 관심을 끈다.

한편 12월 31일 농구 코트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농구영신’ 경기는 지난 시즌 맞붙었던 울산 현대모비스와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울산으로 장소를 옮겨 대결한다.

올스타전은 2025년 1월19일 열리며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프로농구 2024-2025시즌이 19일 개막한다. 원주 DB 이선 알바노(왼쪽)가 13일 오후 충북 제천시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수원 KT와 원주 DB의 2024 프로농구(KBL) 컵대회 결승전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개최 ‘LPGA BMW’ 내일 티오프

파주 서원CC서 나흘 동안
리디아 고·신지애 등 출격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일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20만 달러)이 이번 주 개최된다.

올해 BMW 챔피언십은 17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파주의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서원힐스 코스(파72·6666야드)에서 열린다.

BMW 챔피언십에서는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지난해 이민지(호주)가 정상에 올라 모두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트로피를 가져간 바 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올해 대회엔 LPGA 투어 선수와 스폰서 초청 선수를 포함해 총 78명이 출전해 나흘간 컷 탈락 없이 경쟁을 펼친다.

세계랭킹 ‘톱5’ 중엔 1위 넬리 코르다(미국)와 5위 고진영이 빠졌다. 애초 출전이 예고됐던 코르다는 연습에서 가벼운 목 부상을 입었다며 이번 대회와 24~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메이뱅크 챔피언십까지 기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세계랭킹 2~4위인 릴리아 부(미국), 리디아 고, 인뤄닝(중국)은 모두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두고 8월 열린 2024 파리올림픽에선 금메달을 목에 건 리디아 고는 지난달 말 후원사 주최 대회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10위)에 이어 또 한 번 한국 팬과 만난다.

인뤄닝은 1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뷰익 상하이에서 투어 통산 4승째를 올린 데 이어 아시아에서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한국 선수 중에는 올해 1승을 올리고 꾸준한 면모를 보이는 유해란을 우승 후보로 꼽을 만하다.

작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홀에서 연장 끝에 우승한 이민지(호주)가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메츠, 만루포로 다저스 잡고 NLCS 1승1패

미국프로야구(MLB) 뉴욕 메츠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NLCS·7전 4승제) 전적을 원점으로 돌리고 안방인 뉴욕으로 향한다.

메츠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NLCS 2차전에서 3루수 마크 비엔토스의 만루 홈런을 앞세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7-3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다.

두 팀의 3~5차전은 17일부터 사흘간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다. 메츠 타선은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3경기 연속 팀 완봉승과 33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벌이던 다저스 마운드의 기록을 1회에 모조리 끊었다.

선두 타자 프란시스코 린도르가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아치로 포문을 열었다. 메츠는 2회초 1사 1, 2루에서 터진 타이론 테일러의 2루타로 1점을 추가하고 이어진 2사 만루에서 비엔토스의 우중월 그랜드 슬램으로 6-0으로 달아나 승기를 잡았다.

메츠 선수들이 만루 홈런을 날린 비엔토스(왼쪽 세번 째)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UPI=연합뉴스